

일본과 중국 언론인들의 반한류 인식

Japanese and Chinese Journalists' Views on Anti-Korean Wave

김은준*, 김수정**

대전보건대학교 교양과*,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Eunjune Kim(eunjune@daum.net)*, Sujeong Kim(sukim@cn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류의 공적인 담론 생산자이자 전달자인 언론인들이 인식하는 각국의 반한류 정서가 어느 수준으로 이해되며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인식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한중일로 대변되는 동북아시아지역은 역사와 정치, 문화갈등에서 비롯된 반한 감정이 반한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인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반한 감정은 지형학적 특수성과 역사적 관계가 문화 수용을 이해하는 기본 구조로 기능하며,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표출되고 전파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즉, 반한류 현상이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현지 수용자의 직접적인 반감이나 불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 간의 차이도 감지되었다. 일본의 경우 반한류가 주로 '반한' 감정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의 경우는 반한 감정이 실제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불만을 촉발하거나, 반한류 감정으로 전환되거나, 접합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한류 | 반한류 | 일본 반한류 | 중국 반한류 | 언론인 인터뷰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Japanese and Chinese journalist's views on anti-Korean wave, who are the public and authoritative discourse producers in Japan and China, respectively. In so doing,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ways in which the phenomena of anti-Korean wave take place and are diffused. According to the findings, anti-Korean wave in north-east Asia is affected by anti-Korea sentiments that have been induced from historical and political relations as well as cultural conflicts. In specific, the anti-Korea sentiments found in both Japan and China are geopolitical particularity and historical relations function to frame their cultural receptions of Korean pop culture. In other words, the phenomena of anti-Korean wave in both countries do not stem directly from local audiences' either discontents or apathy on Korean pop contents. However, while Japanese anti-Korean wave seems to be mere expressions of anti-Korea sentiments, Chinese sentiments of anti-Korean wave are triggered and transferred by, or articulated with their anti-Korea sentiments.

■ keyword : | Korean Wave | Anti-Korean Wave | Japanese Anti-Korean Wave | Chinese Anti-Korean Wave | Journalist |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언론진흥재단 <해외언론인의 한류에 대한 인식 및 혐한 보도 연구>에서 자료 일부를 사용하였고, 추가 조사 등은 2014년 충남대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접수일자 : 2016년 02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5월 03일

수정일자 : 2016년 04월 25일

교신저자 : 김수정, e-mail : sukim@cnu.ac.kr

I. 서론

외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인기를 끌며 적극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는 ‘한류(韓流)’는 부침을 겪으며 어느새 20여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한류의 인기가 높아질 때 동시에 한류에 대한 저항의 모습 또한 발견되는데, 한류(韓流)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의미하는 ‘반한류(反韓流)’는 바로 한류의 존재나 영향력을 입증하는 반대사례라 할 수 있을 만큼, 한류와 동시에 발생하는 문화현상이다. 반한류 정서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반감과 밀접히 닿아있어서, 한류에 대한 호감과 반감은 한국에 대한 호감과 반감과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감정적인 전이들에 미디어의 보도와 인터넷, 그리고 최근에는 SNS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반감과 반한류의 사례는 가까운 일본에서 일찍이 제기되었다. 2003년 ‘온사마’의 열풍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의 대중문화 역사에서도 새로운 기원을 이룰 당시 거의 동시에 ‘혐한류’(嫌韓流)라는 이름을 건 현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반한류 현상은 그 정서가 미디어를 통해 발생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됨으로써 국가의 정치와 문화 간에 첨예한 긴장과 갈등의 지점으로 부상하고 주목받아 왔다.

이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2014년 이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인한 한류 열풍이 2005년의 <대장금>을 압도할 만큼 화제를 몰고 오며 한류가 다시 절정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2016년은 사전 제작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한국과 동시 방송하면서 또다시 한류 열기를 뜨겁게 덥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풍의 다른 일부에서는 반한류적 정서 역시 꾸준히 존재해 왔다. 일례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 서울에서 성화봉송 충돌사건 등 반한 감정이 극심하게 표출되었는데, 당시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던 날조기사와 오보가 반한국(反韓國)과 반한류 감정을 키우는데 크게 일조했다. 당시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인터넷 상의 루머를 그대로 믿고 한국 매체와 한국인들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표출하는 등 심각한 반한 감정을 몰고 오며, 한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1].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반한류 양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경제적 성장에 기여하는 한류 발전의 측면

을 넘어 한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사이,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문화적 관계의 향상이란 측면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한류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 내용 역시 일련의 반한류 현상에 대한 서술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일본의 혐한류 만화와 같은 미디어 텍스트 분석과 보도 분석, 그리고 일반인들의 설문 연구를 더할 수 있을 뿐이다. 아쉽게도 기존 연구들에서는 실제 반한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주류 담론을 생산하거나 매개하는 언론인들이 어떻게 자국의 현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방송과 신문은 아직까지도 대중의 담론 의제를 설정, 매개, 확산시키는 영향력 있는 주류 매스미디어라는 점에서, 방송과 신문에서 담론을 생산해내는 언론인들이 지닌 반한류에 대한 인식은 남다른 중요성을 지니므로 관련 연구의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류에 대한 공적 담론의 일차 생산자로서 일본과 중국 매체의 언론인, 특히 국제 분야를 담당하는 언론인들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반한류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반한류 현상이 국가 간 정치외교 관계 및 문화에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없는 반한류 발생지역에서 언론인들의 반한류 현상에 대한 인식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반한류 현상의 실체와 전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한류 연구의 경향

한류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중국의 한류 현상을 중심으로 점화되어 약 1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 경향은 접근 시각의 측면에서 크게 두 경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류의 효용적 시각으로서 한류 연구의 지배적인 흐름을 대변한다. 기업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한류를 경제적 성장 및 정책적, 전략적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적 시각으로서 한류를 소통적 현상으로 접근하고 글로벌 문화적 차원에서 인식하려는 연구들이다.

물론 이 두 시각을 양 극으로 삼는 하나의 스펙트럼을 상정하면, 이 두 시각을 절충하고 있는 연구들이 그 중간에 다수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경제와 정책 중심의 효용적 시각과 구별되는 문화적 관점의 시각은 새로운 아시아 지역 문화현상으로서 시작된 한류를 이론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였다. 그 중 2개의 주요한 개념이 한류라는 지역의 문화적 흐름을 설명하는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 하나는 한류를 이끈 드라마의 텍스트에 주목한 연구들이 지향한 ‘문화적 근접성’ 개념이다[2][3]. 아직 한류가 중국, 대만, 홍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초기 단계였던 시점에서 이들 연구자들은 유교문화를 아시아의 한류를 가능하게 만든 문화적 공통자원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한류가 케이팝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라틴 지역에 까지 확산되기 시작하는 한류 2.0 단계에 이르게 되자, ‘문화 근접성’의 논의를 넘어서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문화 혼종성’ 개념이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다. ‘문화 혼종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가 혼종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문화에 익숙한 부분으로 한류를 선택적으로 수용가능하며, 한류의 향유와 소비 자체가 수용국의 문화적 과정으로 혼합되어지는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다[4-6]. 현재 ‘문화 근접성’ 개념에 더해 ‘문화 혼종성’ 개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용되면서 한류라는 문화적 흐름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한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나름의 이론적 논의를 이뤄온 것에 비하면, 뒤이어 살펴볼 반한류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과 중국에서의 반(反)한류 선행연구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한류 현상이 학문적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채 10년도 되지 않는다. 이는 일본의 경우 2004년을 전후로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 <2채널>을 중심으로 혐한 담론이 회자되기 시작했고[7], 2005년 <만화 혐한류>가 출판되면서 한류 회의론이 가시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8]. 이 시기는 일본에서 2003년 <겨울연가>의 방송 이후,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와 인접한 시기다. 이후 2006년 무렵 일본 내 한류 열기가 진정되는 시기를 지나, 2009년을 전후로 케이팝과 아이돌 가수들이 다시 ‘신한류’ 열풍을 몰기 시작하자, 뒤이어 한국과 한류에 대한 증오언설이 2013년을 전후해 일본 우익세력인 ‘재특회(在特會,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를 중심으로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의 반한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드러난다. 2005년 <대장금>을 기점으로 한류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수익 창출을 앞세운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으로 과잉공급 되면서 한류에 대한 반감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의 반한 감정은 외교와 역사문제와 연관되어 더욱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 2004년 동북공정 논란, 2005년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 2008년 쓰촨 대지진 당시 한국 네티즌의 악성댓글, SBS의 올림픽개막식 리허설 무단 촬영 등의 사건은 반한 감정 뿐 아니라 반한류 정서가 확산되는 대표적 사건으로 작용했다[9].

따라서 반한류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각각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반한류의 발생과 전개 소개, 둘째는 반한류의 원인 진단, 셋째는 반한류의 극복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반한류의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경우다. 한영균[10]에 따르면, ‘혐한류’ 용어는 2004년에 등장하였지만, 실제로 이것은 소수 일본 우익들의 인종차별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기인한 것이지, 한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반대를 담고 있는 혐한류는 2010년 이후에야 시작되지만, 그 주체는 대부분 한국에 극심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일부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극우들이 만화나 <2채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반한류’에 대한 감정을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일본인들이 사전 지식이 있는가의 여부이며[11] 구체적으로는 한일간 역사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2].

이와 다르게 중국 내 반한류의 원인은 대체로 자국 문화산업 보호와 민족주의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13][14]. 중국 반한류의 초기 단계인 2005년 전후에 반한류 발언과 정서는 주로 대중문화 종사자들에게서 나왔는데, 주로 중국의 대중문화산업이 한류에 의해 위축되거나 압도되는 것에 대한 문화산업적 위기감의 발로였다[15]. 이러한 위기감은 국가광진총국이 한국드라마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사적, 외교적 갈등과 더불어 한국 역사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한다는 주장 등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반한류라는 대중적인 정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16]. 유보진은 중국 내 반한류의 원인이 첫째, 역사와 문화 분야의 충돌과 오해, 둘째, 일부 한중인사들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기인한 행동들, 셋째, 경제적 이익과 국가문화적 영향력의 경쟁력 등에서 기인되었다고 주장한다[13]. 한편 중국 대학생들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반한류의 원인으로서는 불균형적인 일방적 한류의 중국 전파, 자국 문화 산업의 보호, 한류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 상실, 국가 사이의 정치·사회적 측면이 제시되기도 하였다[17].

이러한 일본과 중국에서 반한류 현상의 원인에 대한 논의들은 문화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일본의 혐한류와 중국의 반한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두 나라에서의 반한류 현상을 추동하는 요인과 그 성격에서는 상이성이 발견된다. 일본의 경우는 그 주체가 극우단체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핵심을 이룬다. 또한 혐한류 주체가 극우단체임이 일본 내에서 분명히 인지되고 있어서, 일본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10]. 그에 비해 중국의 경우는 분명한 주체가 있기보다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대중적으로 유포된다는 점에서 문화민족주의적 자존감이 반한류 정서를 확산시키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과 달리 중국은 문화산업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류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전파된다는 사실이 반한류 정서를 매우 강력하게 떠받치는 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국에서 한류 현상은 한중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문화적 소프트파워 경

쟁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그것이 ‘중화주의’라는 문화민족주의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대중들의 반한류의 정서와 움직임으로 확산된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의 반한류 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반한류의 극복 방안의 측면에서는 거의 공통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인을 포함해 중국인과 일본인 모두가 취해야 할 태도와 인식으로서, 국수주의나 자문화우선주의를 극복하고, 한류 현상을 상호이해와 문화소통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한류를 문화산업적 가치로만 연결시키는 경제주의적 접근이 상대 국가들에게 경쟁 심리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일본과 중국과의 국가 사이의 역사적, 문화적 사건들과 동북아 국제정세 등 다각적인 요인들이 한류와 반한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된다. 이는 일본과 중국 대중들이,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오보나 편협한 국가주의 감정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뿐 아니라 타국의 주류 미디어의 역할 또한 주목된다. 반한류 담론들은 반드시 양국과 관련된 일련의 문화적 또는 정치적 사건과 관련되어 제기 또는 확산되는데, 여기서 TV와 신문 미디어는 그것을 주요하게 다룰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 일본만 해도 일본내 극우들의 혐한류 활동에도 불구하고, 권위있는 주류 언론에서는 이를 잘 거론하지 않으며[18], 한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사가 주를 이룬다[19]. 중국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는 없지만, 한류 초기인 2005년 전후에 CCTV에 ‘신한류 vs 반한류’라는 시청자 토론방을 열어 사실상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이 유통될 수 있게 매개했던 사례에서 볼 때에도 주류 미디어의 역할은 중요하다[20]. 더불어 개별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험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 인식과 호불호가 조정되기도 한다[21]. 따라서 거의 모든 반한류 연구에서는 반한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양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과 상호이해의 제고가 강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류가 해당 국가의 현지문화에 뿌리를 내리면서 현지문화와 상호작용하고

쌍방향통행의 길을 찾을 때 반한류 현상이 악화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제언하고 있다.

III. 분석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반한류 현상에 대해 해당 국가 언론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밝힘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반한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최근의 반한류 연구들은 반한류 정서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광범위한 대중의 담론은 여전히 권위있는 주류 미디어의 담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류 언론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주류 언론 종사자들이 어떻게 한류를 평가하는가는 그 자체가 영향력있는 엘리트층의 인식이라는 점을 넘어, 담론 생산 내지 전달 역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적 가치를 갖는다.

언론인 심층인터뷰는 일본과 중국의 주요 방송사 및 신문사 소속의 기자 총 9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면대면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 중 일본 언론인은 5명, 중국 언론인은 4명이었으며, 여성이 2명, 남성이 7명이었다. 심층인터뷰는 연구자 한 명이 직접 수행하였고, 2015년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한국프레스센터 소재 외신기자클럽 커피숍에서 실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외신기자클럽(SFCC)에 소속되어 있으며, 동일 클럽에 소속된 한국인 언론인의 소개로 접촉을 넓혀갔다. 이들은 자신들 뿐 아니라 소속 언론사가 연구에 노출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기에 그 의사를 존중해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이들 언론인들은 한국에 거주한지 최소 1년 이상된 자들로, 모두 한국어에 능통해서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하였고 평균 1시간 30분 내외로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현재 자국 내 한류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반한류 관련 질문은 개인이 경험한 반한류 사례, 반한류 양상, 반한류 형성이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반한류에 대한 평가, 두 나라의 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답변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로 질문하고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녹취한 후 문자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IV. 언론인의 반한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1. 일본 반(反)한류의 원인과 관련 요인들

1.1 일본에서 한류와 반한류에 대한 체감

일본 언론인들은 공통적으로 2003년 <겨울연가>로 시작된 한류 붐에 대하여 민간교류 영역에서 두 나라의 사이를 좁혀온 경이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 내 한류의 붐이 다시 2009년에서 2011년 까지 최고조에 달했으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상당히 급반전 되었다고 강조한다.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한류는 그 열기가 상당부분 가라앉았고 매우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이 반한류 현상의 결과를 체감하는 사례는 공통적으로 2개가 자주 언급되었는데, 하나는 일본 대중들에게 가장 시청률이 높으며 매년 일종의 미디어 의례처럼 치러지는 NHK의 <홍백가합전> 같은 TV프로그램에 한국 연예인이 2012년 이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후지TV 앞에서 한국 프로그램 방송에 반대하는 극우단체들의 시위 이후, 실제로 후지TV를 비롯해서 많은 방송사들에서 드라마 편성을 대폭 줄이고, 거의 일상화 되었던 한국 연기자나 가수의 출연 역시 매우 드물어졌다는 것이다. 즉, 현재 상태에서 한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발언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들이 체감하는 반한류 현상으로 제시되었다.

1.2 반한류 주체와 반한류의 주요인

일본 언론인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반한 감정과 반한류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현재 일본 내에서 반한류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한류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과 분위기가 한류 분위기를 위축시키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반한류의 정체는 '반한국' 감정을 지닌 세력이 전개하는 일종의 반한 캠페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즉, '혐한류'의 주체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일본의 일부 극우집단들

이라는 점이고, 그들의 극단성은 비합리적이고 인종차별주의적인 것으로 일본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혐한류는 실상 한국이 염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다.

오히려 일본 언론인들이 심대한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현재 냉각된 한일 관계가 그러한 극우들의 혐한류 운동이 좀 더 빈번하고 힘을 얻게 만드는 분위기에 일조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반한 감정을 촉발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응답한 것은 양국 정부 간 긴장과 갈등이었다. 가장 직접적 계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후반 독도 방문이 꼽힌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독도는 일본 내에서 그다지 중요한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나 이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 직후 독도를 자국(일본) 영토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며 반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일본 대중들이 한국의 입장과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알게 되면서, 그간 한국과 한류에 대해 형성되었던 호감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잠시 높아지긴 했으나, 기대와 달리 역사인식과 사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진단된다. 한 언론인 응답자는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며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인들이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일본에서 반한류 기류와 정서는 ‘혐한류’를 전개한 일부 극우들의 직접적인 영향도, 또는 한류 콘텐츠나 연예인과의 관련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한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은 한일 간의 역사적 및 정치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국민들 간의 적대적 정서가 팽배해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3 한국 중앙 일간지와 일본 월간지/주간지의 영향

양국 간의 정치적 긴장이 한류를 위축시키고, 반한 정서를 부추기고 반한류를 주창하는 일부 일본 극우집단들을 활성화시키는 직접적인 지반을 제공했다면, 최근 일반인들에게 반한 감정을 자극하거나 증폭시킨 요인으로는 양국의 언론이 주요하게 지목됐다. 먼저 한국의 경우, 일본 언론인 응답자들은 한국의 메이저 언론

이라고 불릴 수 있는 중앙 일간지,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어판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일본 대중들이 한국 언론의 반일 논조와 대중의 반일 목소리를 여과 없이 읽고 확인하게 된 것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본 사회 내에서 일부에 한정되었던 반한 세력은 한국 메이저 언론에 실린 글들을 증거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보다 크게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 대중들에게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익 세력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반일 기사를 퍼 나르면서 현재 일본 내 반한 감정이 상당히 짙어졌다고 인터뷰 응답자들은 평가한다. 한 일본 기자는 인터뷰에서 ‘상대가 일본이라면 무조건 공격적 보도를 해도 괜찮다는 식의 태도가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의 주류 언론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의 메이저 일간지들은 반일 감정을 노출하고 국민의 반일 정서에 기대는 것을 당연시하고 또 그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 일간지는 극우단체들이 벌이는 반한 관련 사건들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균형보도를 지향하는 일본 주요 일간지의 원칙에서 볼 때, 매우 편향적이고 감정적인 일부 극우들의 의견을 기사화하는 것은 그 언론사의 공신력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다수의 월간지나 주간지들이 반한국과 반한류 정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들 잡지들은 메이저 일간지와는 달리, 균형성이나 중립성, 정확성 등의 저널리즘 원칙이나 규범에 개의치 않고 오직 판매부수를 높이기 위해 황색저널리즘도 마다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2012년 이후 한일 간 정치적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자,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매우 선정적이고 공격적인 논조로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여 일본 대중들에게 더욱 큰 반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인 응답자들은 이것이 한국에 대한 불균형적 인식을 낳고, 한류 콘텐츠에 대한 폄하나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1.4 일본 언론인들의 반한류 전망과 제언

일본 언론인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의 혐한류가 한류 콘텐츠나 한류 소비 자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한류를 크게 걱정할 일로 보지 않았다. 설사 대중들이 한류 자체에 식상해서나 아니면 한류 열풍에 반감을 가져서 반한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화소비 현상으로 보고 있었다. 문화적 소비 과정에서 반한류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며 문화 수용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변화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 반한 분위기로 인해 한류가 위축되긴 했어도 한류팬들은 여전히 소리 없이 자신의 스타와 콘텐츠를 보고 있을 것이므로 한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인 응답자들은 반한국 분위기만큼은 한류라는 측면을 넘어서 양 국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국이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들은 현재의 반한 감정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로 국가 간 관계 개선을 들었다. 또한 이들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한국 언론이 전체 맥락을 고려한 보도와 사실 위주의 균형보도를 지향하면서, 감정적인 민족주의적 태도를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의 반한 감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의 언론들이 일본 내에서는 새롭지도 않고 큰 뉴스가치를 갖지도 못하는 극소수 극우집단의 반일 시위를 매번 중대하게 보도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다수의 주간지와 월간지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들이 반한국 정서가 팽배할 때는 자극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선정적 민족주의에 기대지만, 한일 정치관계가 문제가 없고 한류가 절정일 때는 한류 스타나 한류 소비에 대한 기사에 열을 올리며 매출을 올리려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주요 일간지처럼 어떤 제언의 대상이 된다고 여기지 않았다.

2. 중국 반한류 원인과 관련 요인들

2.1 한류 콘텐츠와 소비에서의 문제점

일본과 달리, 중국에서는 반한류 현상을 이끄는 주도

적인 집단이나 세력이 있다기보다는 반한국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한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중국 언론인들은 외국 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며, 이것이 한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들 언론인들은 중국에서 나타나는 반한류 현상이 한류 콘텐츠와 한류 소비라는 두 측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먼저 한류 콘텐츠 내용의 품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었다. 이들의 다수 응답에 따르면, 한국드라마는 유교적 문화와 연관된 정서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중국에서 큰 호응을 받아왔으나, 최근 들어 상업성과 대중성에 기반을 둔 많은 드라마들이 재벌2세나 출생의 비밀과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주로 담으면서 마치 공식처럼 친편일률적인 전개방식을 보여 일부 중국 시청자들이 호감을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언론인의 응답에 의하면 일부 중국인들은 한류 콘텐츠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의 문화물에 비해 '주제적 심도가 낮고 사상성이 없다'고 느낀다면서, 본인 역시 한류에 대한 반감은 없지만 한류 콘텐츠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그와 같음을 인정했다.

한류 콘텐츠와 연관해서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국인과 중국 역사에 대한 재현이 주로 반한류 정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극에서 한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내용이 나올 때 조선족을 사기꾼으로 다루는 영화나 희화화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고 중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2005년 한류 초기의 반한류 정서가 중국의 문화산업이 한류로 인해 침식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의해 뒷받침 되었는데, 그러한 우려가 최근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자신들의 대중문화산업과 콘텐츠 제작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상대적인 자신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언론인들의 응답에서도 중국 내 문화산업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한류 콘텐츠가 품질을 더 제고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을 다수 찾을 수 있어 이 같은 해석을

뒤편치고 있다.

두 번째는 한류 콘텐츠의 중국 내 소비에 있어서, 케이팝의 과열된 청소년 여성 팬문화가 반한류 정서를 야기한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10대, 20대의 젊은 여성 팬들이 한국 아이들에 지나치게 열광하면서 부모와 갈등을 빚거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국 스타를 무리하게 따라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머리가 빈 행동’이라고 어른들이 비판하거나, 케이팝 장르 자체가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나 좋아하는 것’이라는 고정된 이미지가 생기고 이것이 반한류로 연결되면서,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낳는다는 것이다. 언론인들의 이러한 보고는, 중국 내의 문화 소비에서의 세대 간의 차이와 젠더 간의 권력관계가 한류 콘텐츠를 매개로 발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한류 콘텐츠에서 그려지는 한국의 모습과 실제 한국의 모습이 불일치하는데서 오는 실망감 역시 반한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제시되었다. 한 응답자는 양국 간 교류 활성화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늘면서, 드라마와 실제 모습 간의 확연한 차이를 언급한 의견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매력에 실제 한국에 대한 실망을 낳고 그것이 반한류 감정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2.1 중화주의와 문화민족적 경쟁의식

중국 언론인들은 대체로 반한류에 대해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실제 중국 내의 반한류 현상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한국 자체를 싫어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점은 일본의 반한류와는 달리, 중국 내의 반한류가 중화사상과 문화민족주의에 기초한 경쟁의식과 결합되어 촉진되거나 확산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중국인들은 같은 유교문화권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이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흠치고 있다고 여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 11월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두고, 사실 그 전래와 민속행사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같아 오해가 발생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한국이 중국문화를 침해한다는 담론이 형성되며 반한 감정으로

확산되기도 했다[22]. 이 사건은 한국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중국 언론인 모두가 이 사례를 예시로 들만큼 중국에서는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 사례는 한류의 확산이 세계 경제에서 존재감을 드높이고 있는 중국인들의 문화적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반한류 정서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중국 언론인들은 이러한 반한류가 한류 콘텐츠의 소비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것이지만, 그러한 작용은 문화의 교류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파고와 같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2.2 국가 간 외교정치와 중국 언론의 작동방식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또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의 반한류 관련 사안에 대한 중국 언론의 작동 방식이다. 중국의 매체는 관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근처럼 한중 관계가 우호적인 경우에는 한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가 잘 등장할 수 없다고 중국 언론인들은 말한다. 즉, 최근 시진핑과 박근혜 정부 간의 외교 관계는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권과도 비교할 수 없이 최고의 상태라서 중국 정부의 기초와 반대되는 반한 이슈나 반한류 정서는 적어도 관영 주류 언론에서는 기사화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반한류 관련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언론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언론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역사나 문화 차원과 관련된 반한과 반한류 정서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무작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상의 유언비어와 개인들의 반한 의견들은 매우 빠르게 공유되면서 대중들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만나게 되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드라마나 노래가 반한 감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겠지만, 인터넷 상의 반한 감정은 분명 한류를 덜 좋아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본다’며 인터넷이 일상적 수준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일단 반한 감정이 형성되면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해소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2.3 중국 언론인들의 반한류의 전망과 제언

인터뷰에 참여한 중국 언론인들 역시 양국 간 역사와 전통을 둘러싸고 민감한 사안들이 발생할 때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이것이 콘텐츠 소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반한과 반한류 감정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 언론인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전반적으로 반한류 현상은 한류의 인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파악하고 있었다.

중국내 반한류 정서에 대한 제언으로는 반한 감정이 콘텐츠 자체의 내용에서도 일부 비롯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콘텐츠의 품질 제고와 동시에 중국인과 중국문화에 대한 재현에서 중국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제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 언론인들은 정부차원의 노력과 균형있는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중국 언론인들은 양국의 미디어가 정확한 정보제공과 해명을 통해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일례로, 단오제에 대한 오해로 불거진 반한과 반한류 담론이 중국에서 퍼질 때, 그에 대해 한국 정부 관료나 문화원 등에서 어떠한 정보교정의 시도도 없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매체의 서로 다른 체제에서 비롯되는 차이를 인정하되, 한국매체의 시장지향적 태도가 반한 감정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즉, 중국매체들은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을 지양하는 반면, 한국매체들은 보도하는 사안이 분쟁이나 논란을 더할수록 언론사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여기고 부정적 사안을 반복해서 크게 다룬다고 중국 언론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미디어가 대중들의 편견을 균형적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한류 내지 반한 감정을 다루는 양국 언론인들의 성찰적 자각이 필요하며, 정보전달은 물론 정보교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V. 결론

일본과 중국 언론인이 자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반한류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각국의 현상 원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공통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본과 중국 언론인들의 반한류 인식

공통점	
일부 국민의 반한 정서가 반한류 태도로 표출	
양국 간 정치적 문화적 갈등이나 이슈가 반한(류)을 촉발	
인터넷이 반한과 반한류 정보와 정서가 유포, 확산되는 온상	
차이점	
일본 반한류	중국 반한류
반한 주장의 극우집단	일반 대중
반한류는 한류 콘텐츠와 관계 없음	한류 콘텐츠의 품질/한국 문화콘텐츠에서 중국(인)과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부정적인 재현이 반한류 정서로 전환
한류 소비자와 관계 없음	젊은 열성팬들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반한류로 전환
한국 주요 일간지의 일본판 보도 + 일본 잡지들의 선정적 반한국 기사가 반한 감정 야기	양국의 정부 간 우호 상태에 따라 관영 언론의 반한류 보도 조절
우익의 인종차별주의와 국가적 긴장이 반한과 반한류 정서를 추동	대중의 우월적인 문화민족주의(중화사상)에 따른 문화자존감과 국가 경쟁심리가 반한류 정서 추동

[표 1]에서 제시된 것처럼, 일본과 중국 언론인들이 바라본 자국의 반한류 현상은 공통적으로, 한류와 무관하게 기존에 한국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반한국 집단이나 대중이 보여주는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일차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역사 및 정치 갈등에서 비롯된 반한 감정이야말로 반한류를 형성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요인이었어 확 인되었다. 이것은 반한류 현상은 '반한' 현상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반한류는 한류 콘텐츠와는 무관한 기존 우익집단들의 '반한' 행동의 일환에 불과할 뿐 별도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반한 정서가 실제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불만으로 반한류와 상호작용하거나 상호전이되는 형태를 띠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반한류에 대한 두 번째 공통점은 한국과 두 국가 간의 역사, 정치, 문화적 갈등이 반한 감정이 나 반한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및 SNS의 발달이 반한 감정과 반한류 정서의 형성과 유포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일본과 중국의 반한류는 정확한 정보나 합리적 추론보다는 편파적 감정과 자민족중심주의에 근거하여 왜곡된 상태로 발생, 지속되는 경향이 크다 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의 반한류 성격의 차이는 먼저, 일본의 경우 극우집단이 근거하고 있는 인종차별적 국가주의가 반한류의 감정을 추동하고 있다면, 중국은 반한과 반한류 모두 중국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중화사상과 문화민족주의적인 경쟁의식이 대중 심리에 불을 지핀 결과라는 점이 인터뷰 결과 드러난다. 이는 일본의 반한류에 비해 중국에서의 반한류가 더욱 가변적이고 사안에 따라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각국의 미디어 작용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신문의 일본판이 일본에서의 반한 정서를 대중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인터뷰에서 강조되었는데, 이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보도 행태를 성찰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는 각국의 언어로 보도할 때,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그 언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해독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중국에서 주목할 점은, 반한류가 단지 한국의 콘텐츠나 한국인의 태도, 또는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정치적 관계에 의해서만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정체성과 문화취향을 둘러싸고 한류가 세대 간 갈등의 소재와 장소가 되고 그것이 반한류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중국 언론인들의 반한류 인식 연구는 그들 인식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의견형성에 영향력있는 엘리트이자 언론 생산자인 그들의 인식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자국의 반한류에 대한 그들 자신의 시선과 해석을 밝힘으로써, 우리가 간과한 점들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반한류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은 반한류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공명하며 그것을 확인해 준 점들도 있고, 또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국 언론의 역할이나 한류 소비를 둘러싼 자국 내 세대 간 갈등이 어

떻게 반한류 정서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게도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은, 주요한 공식 담론 생산자인 일본과 중국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반한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비교적으로 살펴본 점이다. 각 국가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녔을 뿐 아니라, 한국과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 또한 개별적이고 특수하다는 점에서 반한류 현상 역시 고유의 관계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본 비교 연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 역시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어쩌면, 각국의 반한류가 순수하게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부 그럴 경우에서조차 반한류 현상은 한류를 위해 제거되어야 할 위협적 요소라거나 한국과 양국의 관계를 긴장시키는 어떤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은 반한류를 대하는 우리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결국 반한류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문제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문화의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즉 상대방의 자율성과 특성으로써 인정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먼저 요구된다 하겠다.

한류와 같은 초국적 문화흐름에서 반한류가 갖는 성격과 의미, 그리고 그것의 작동방식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특수성을 벗어나서 연구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한류는 세계 곳곳으로 퍼졌고, 그것은 반한류 현상 또한 언제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한류 현상에 대한 연구는 동북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극소수에 머물러 있다. 이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반한류 현상에 대한 비교적 연구들이 후속 연구로서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윤경우, “중국의 한류수용 양상: 선택적 수용, 저항 그리고 변용 및 주변화,” *중소연구*, 제32권, 제4호, pp.99-132, 2009.
- [2] 유세경, 이경숙, “동북아시아 3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문화적 근접성: ‘별은 내 가슴에’, ‘진정고백’, ‘동변일출서변우’ 비교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5권, 제3호, pp.230-267, 2001.
- [3] 유세경, 정윤경, “국내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판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해외 판매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4권, 제1호, pp.209-255, 2000.
- [4] D. Shim, “Hybridity and the rise of Korean popular culture in Asia,” *Media, Culture & Society*, Vol.28, No.1, pp.25-44, 2006.
- [5] 김수정, 양은경, “동아시아 대중문화물의 수용과 혼종성의 이해,”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1호, pp.115-136, 2006.
- [6] 류용재, “한국 문화연구의 정치경제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 한류의 혼종성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6권, 제4호, pp.2-27, 2008.
- [7] 村上和弘, インターネットの中のツシマ: ‘嫌韓’現象をめぐって. 石田佐恵子·木村幹·山中千恵編著, ポスト韓流のメディア社會學, pp.181-182.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07.
- [8] 정수영, “만화 혐한류(マンガ嫌韓流)의 이야기 분석을 통해 본 일본 내 혐한류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58권, pp.187-215, 2010.
- [9] 황낙건, “일본과 중국 내 반(反)한류 현상에 대한 고찰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류비즈니스연구*, 제1권, pp.211-233, 2014.
- [10] 한영균, “일본 내 ‘혐한류’ 현상의 실체,” *일본문화연구*, 제48권, pp.433-456, 2013.
- [11] 박수옥, “일본의 혐한류와 미디어내셔널리즘: 2ch와 일본 4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47호, pp.120-147, 2009.
- [12] 김미선, 유세경, “일본 시청자의 한국드라마 시청에 관한 연구: 한일 역사 인식에 따른 한국드라마 시청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44-54, 2014.
- [13] 유보전, “한류의 경쟁력과 한계분석: 중국내 한류의 진파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43권, pp.319-343, 2014.
- [14] 허진, 원춘잉, 류샤오화, “중국 네티즌들의 반한정서와 인터넷 민족주의: 텐야논단을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제17권, 제4호, pp.227-256, 2013.
- [15] 김은희, “중국의 시선에서 한류(韓流)를 논하다,” *담론* 201, 제15권, 제4호, pp.235-255, 2012.
- [16] 김익기, 장원호, “중국에서의 한류와 반한류: 문화접변에서 혼종화로,” *지역사회학*, 제14권, 제2호, pp.175-202, 2013.
- [17] 한은경, 장우성, 이지훈, “반한류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16권, 제2호, pp.217-235, 2007.
- [18]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종합 조사연구*, 2008.
- [19] 주정민, “한류 콘텐츠에 대한 ‘반한류’ 현상의 원인과 대응: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7권, 제2호, pp.137-160, 2013.
- [20] 정수영, 유세경, “일본과 중국의 주요 일간지에 실린 대중문화 한류 관련 뉴스 분석,” *언론정보연구*, 제50권, 제1호, pp.121-156, 2013.
- [21] 안정아, “중국 80-90후와 외국 대중문화의 선택적 수용: 베이징 사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pp.34-43, 2014.

저 자 소 개

김 은 준(Eunjune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충남대학교 언론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교양과 조교수

<관심분야> : 문화연구, 미디어콘텐츠

김 수 정(Sujeong Kim)

정회원



- 2003년 6월 : 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2004년 10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 초국가적 대중문화, 미디어콘텐츠, 문화이론